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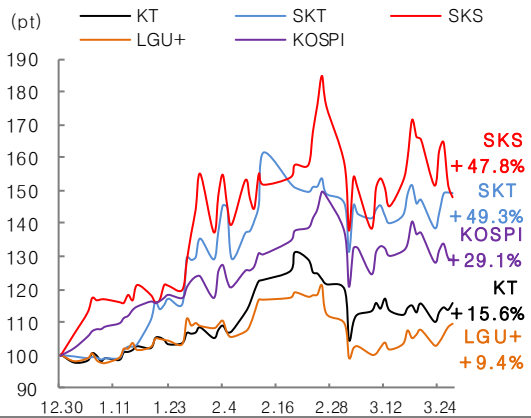
기업	25/12/30	03/20	03/27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78,800	79,900	▲ 26,400	▲ 49.3%	▲ 1,100	▲ 1.4%	3,320	4.2	
SK스퀘어 (402340)	368,000	608,000	544,000	▲ 176,000	▲ 47.8%	▼ 64,000	▼ 10.5%			
KT (030200)	52,600	60,700	60,800	▲ 8,200	▲ 15.6%	▲ 100	▲ 0.2%	2,600	4.3	
LGU+ (032640)	14,720	15,820	16,100	▲ 1,380	▲ 9.4%	▲ 280	▲ 1.8%	700	4.3	
KOSPI	4,214.2	5,781.2	5,438.9	▲ 1,224.7	▲ 29.1%	▼ 342.3	▼ 5.9%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배당 투자의 중요성**
- 통신 주간 +0.8%, KOSPI -5.9%. YTD 통신 +26.1%, 지수 +29.1%. 지정학 이슈 부각 후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통신이 방어 역할 수행
-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 상법 개정 이후 주총 시즌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신규 발표 및 보강 계획 발표
- 통신은 이미 24년에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보다 개선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착실히 이행 중
- 상법개정과 주총 시즌을 거치면서 주주환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점이 최근 통신업 주가 상승의 배경 중 하나
- 26년 배당의 경우 KT, LGU+는 분리과세 적용. SKT는 4Q26 배당부터 비과세 적용. 결국 3사 모두 배당에 있어서 세제 혜택 가능
- 전통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가능한 통신업종에 대해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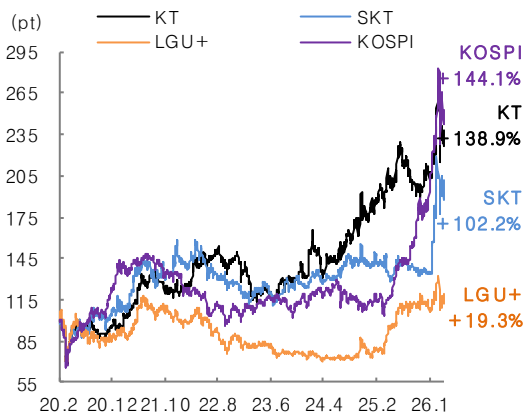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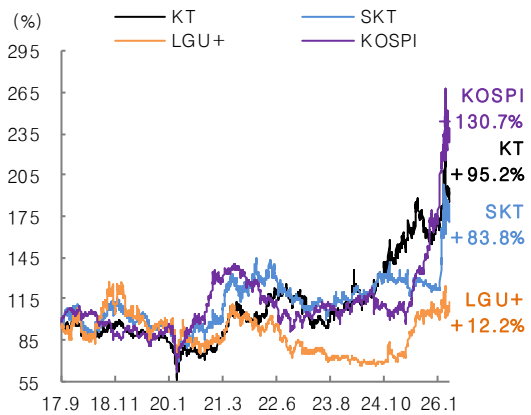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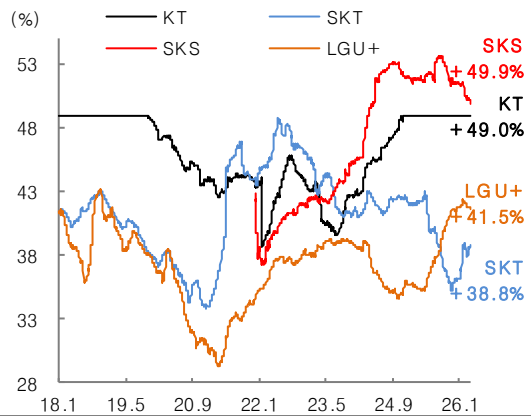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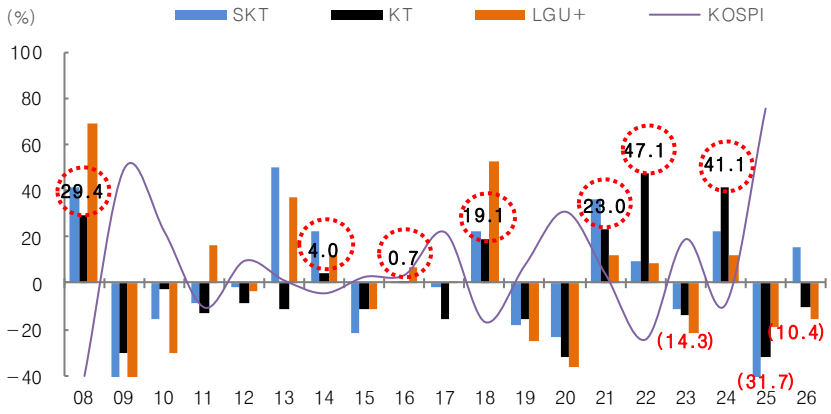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49.3%(+15.7%), KT +15.6%(-10.4%), LGU+ 9.4%(-15.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49.3	15.6	9.4	29.1	15.7	(10.4)	(15.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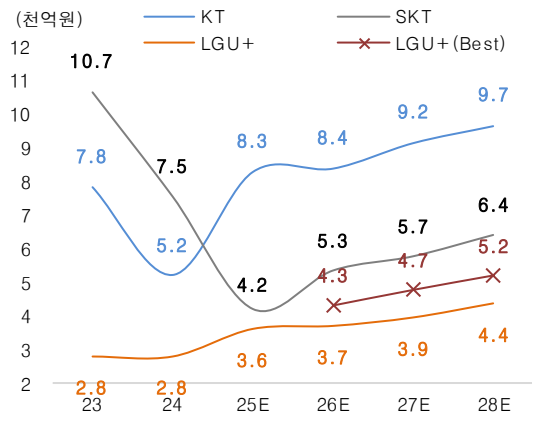
3. 주간 코멘트

SKT AI 투자 전담 법인, 광화문 AI N/W 검증,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AI-RAN 한국 총회, KT조직 슬림화

SKT **SKT AI 투자 전담 법인**	1. SKT가 케이만 제도에 AI 투자 전담 법인인 '포레스트 AI 인베스트먼트' 설립 추진. 기존 투자 구조와 별도 글로벌 AI 투자 거점 구축 전략 2. 신설 법인은 기존 투자법인 아틀라스 인베스트먼트 자회사 형태로 자본금 약 200억원 규모. 단순 SPC와 달리 장기적 투자 플랫폼 기능을 고려한 구조 3. 케이만 제도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가 없는 금융 허브로 공동 투자에 유리한 환경 제공. 글로벌 투자자 참여와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 목적 반영된 입지 선택 4. 투자 범위는 AI 모델과 에이전트, 데이터센터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 가능. K-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한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 생태계 확장 흐름 5. 앤트로픽 투자 성과가 전략 전환 배경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 1억달러 투자 이후 지분 가치 약 1조3,800억원으로 증가하며 10배 이상 평가이익 발생 6.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글로벌 인프라 전략과 연계된 투자 구조 형성 움직임. 공동 펀드 조성 및 글로벌 자본 유치 기반 금융 허브 역할 가능성 확대
중립적	▪ AI투자 전담 법인의 설립만 가지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 Anthropic의 투자가 큰 폭의 평가이익으로 나타난 것은 맞지만, 원래 취지가 단순 지분 투자였는지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도출 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25년말 AI를 CIC 형태로 재편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매출 성과 등을 통해 SKT의 AI 사업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
산업 **광화문 AI N/W 검증**	1. 서울 광화문 BTS 공연에서 통신3사가 AI·자율 네트워크 기반 품질 유지 검증. 대규모 인파 환경에서도 안정적 통신 서비스 제공 능력 입증 2. 공연 전후 3시간 동안 데이터 사용량 12.15TB로 전주 대비 약 2배 증가. 수 만명 밀집 환경에서 트래픽 급증 상황 발생 3. SKT는 A-One 시스템으로 5분·50m 단위 실시간 트래픽 분석 수행. 과부하 발생 시 자원 재배치와 분산 처리 체계 적용 4. KT는 이동식 기지국 6대와 기지국 79식, 와이파이 14식 추가 구축 대응. AI 기반 W-SDN과 AIONET으로 자동 트래픽 제어 체계 운영 5. LGU+는 자율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지국 간 트래픽 자동 분산 수행. 이동기지국과 임시 중계기 추가 배치로 혼잡 최소화 전략 적용 6. 넷플릭스 글로벌 생중계와 4만명 이상 현장 인파 동시 발생 환경 속에서 AI 네트워크 기술이 대규모 이벤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는 흐름
긍정적	▪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선 N/W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25년 해킹 사고로 신뢰를 조금 잃었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N/W을 운영해 가면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산업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1.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제공 의무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및 12개 법안 통합.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 개통 사고 방지 목적 정책 강화 3. 핵심 조항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신설 및 사업자의 주기적 안내 의무화. 이용자 데이터 이용 행태 분석 기반 개인별 최적 요금제 추천 방식 적용 4. 정부는 통신 소비 유형 기반 요금 선택 환경 개선 및 합리적 소비 유도 기대 효과 강조. 제도의 안정적 시행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기반 구축 의지 5. 부정 개통 대응 대리점 및 판매점 관리 의무 강화와 위반 시 제재 수준 상향 조치도 포함. 본인 확인 과정에 대포폰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 고지 의무 추가 6. 한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 이용자 보호 조치 기준 명확화 및 대응 체계 정비 포함. 개정안 공포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 하위 법령 마련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계획
긍정적	▪ 최적요금제는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 사용 패턴을 찾아서 안내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량 보다 많으면 낮추고, 오히려 사용량이 부족하면 요금을 자발적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의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본인의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발적인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
산업 **AI-RAN 한국 총회**	1. AI-RAN 얼라이언스가 올해 하반기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 미국과 유럽 외 지역 첫 개최 사례로 한국의 AI 네트워크 거점 부상 가능성 부각 2. 협의체는 24년 설립 이후 첫 아시아 개최지를 선정하며 전략적 확장 의지 반영. 상반기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일정 이후 11월 서울 개최 3. AI-RAN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과 무선접속망 기술 결합을 통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생태계 기반 구축 목적의 연구 협력. 6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술 확보와 네트워크 지능화 추진이라는 중장기 기술 방향성 공유 4.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기업과 국내외 통신사 그리고 노키아, 에릭슨 등 장비 기업 포함 약 130개 기관 참여. 서울대, 도쿄대 등 연구기관 포함된 산학연 협력 구조 속 기술 교류와 표준 영향력 확대 5. 미국 기업 중심으로 출범한 협의체가 한국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략 추진 가능성. 글로벌 통신 반도체 연구기관 집결을 통한 공동 연구와 사업 기회 확대 파급 효과 존재
긍정적	▪ AI-RAN은 통신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AI 산업에 기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 ▪ Generative AI를 지나 Agentic AI와 Physical AI로 진화할수록 N/W의 품질, Latency의 중요성 부각. N/W의 기지국 영역에서 AI를 도입함으로써 N/W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통신사에게도 AI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KT **KT 조직 슬림화**	1. 박윤영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가 임원 감축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경영 구조 재정비 흐름. 정기주주총회 직후 임원 인사 단행 예정, 대규모 인적 구조 조정 계획 구상 2. 전체 임원의 20~30% 감축 방안 검토, 지난해 기준 94명 중 최대 20명 이상 감원 예상. 상무보급부터 퇴직 통보 진행. 조직 슬림화 선제 실행 3. 박윤영 대표 후보 선임 이후 조직 개편 준비가 이어졌으나 기존 경영진과 인수인계 마찰로 인사 지연 상황 발생. 신규 사외이사진 윤곽 확보 이후 조직 개편 재가동이라는 경영 전환 국면 4. 임원 인사 확정 이후 직원 인사도 다음달 초중순 순차 진행 예정. 내부 인력 이동과 재배치 및 조직 전반의 구조 재편 계획 구체화 단계 5. 거버넌스 문제, 대규모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업 현안 누적 상황 속 새 경영진의 본격적 대응 필요성 확대. 현재 조직 개편 지연 영향으로 신규 사업 전략 수립 차질 및 경영 공백 상황 6.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기반 B2B AI 사업 방향 재설정 가능성도 존재
중립적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슬림화는 긍정적.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인원을 보강하고, 불필요한 영역을 슬림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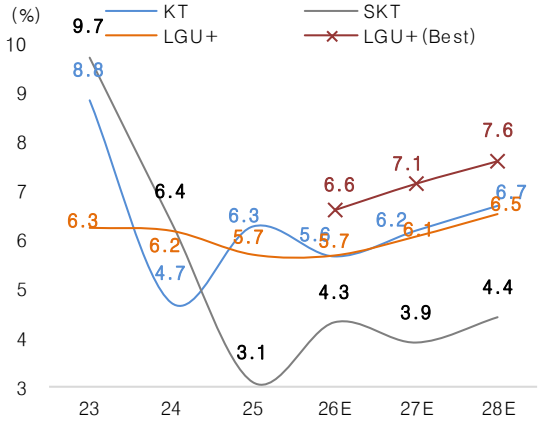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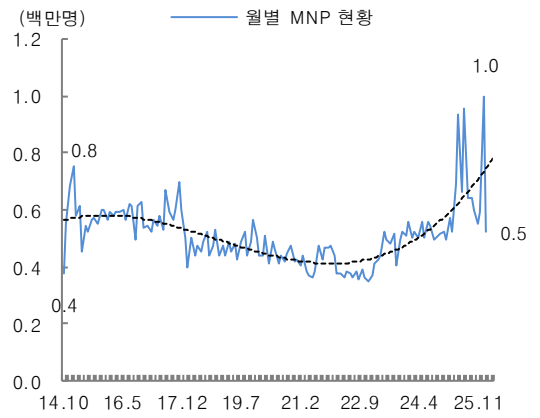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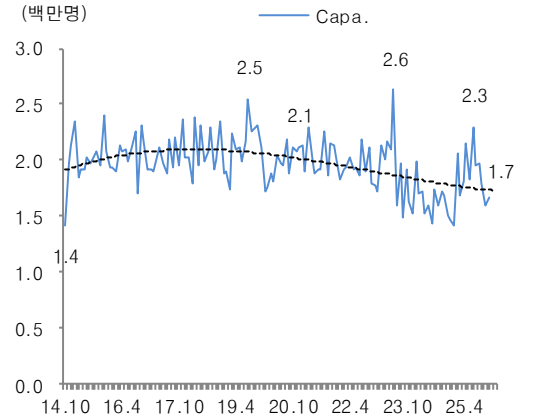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2월) 521천명, -479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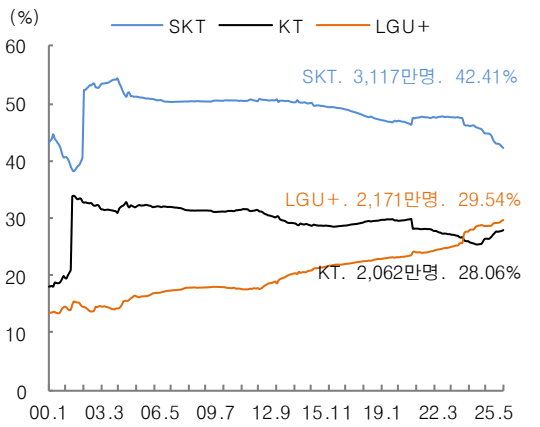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7만명(25.12월). 24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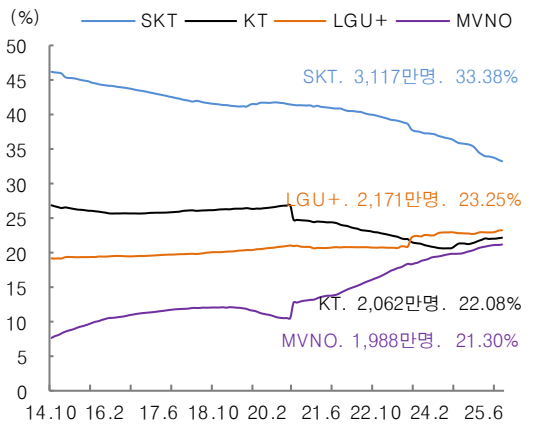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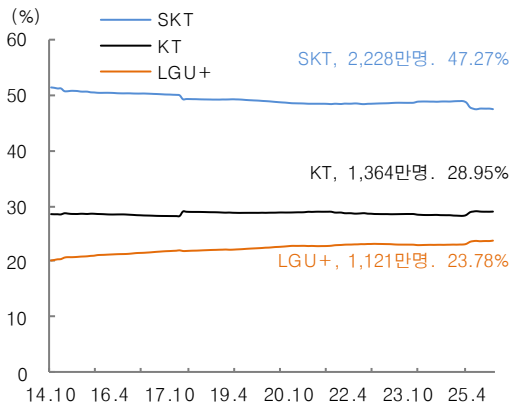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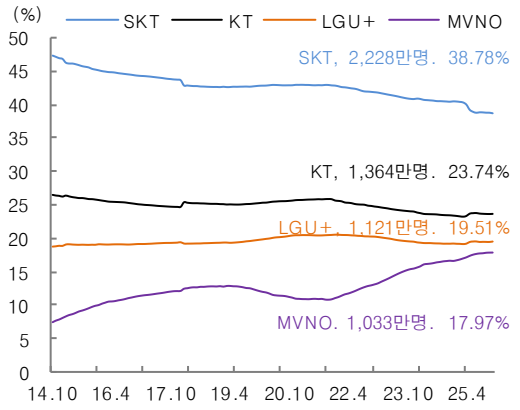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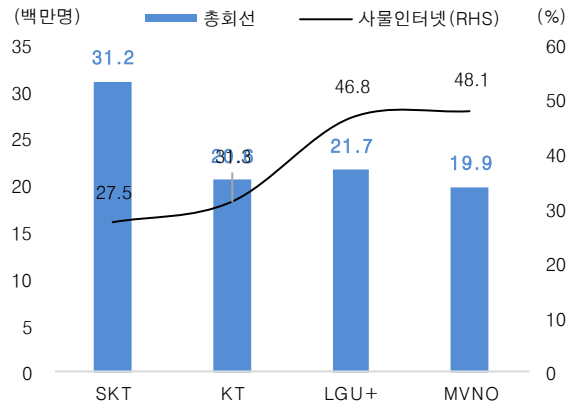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5.12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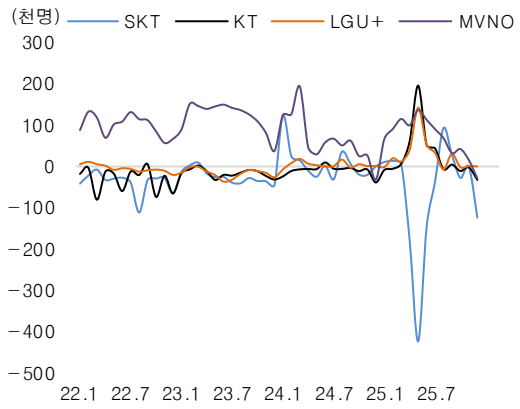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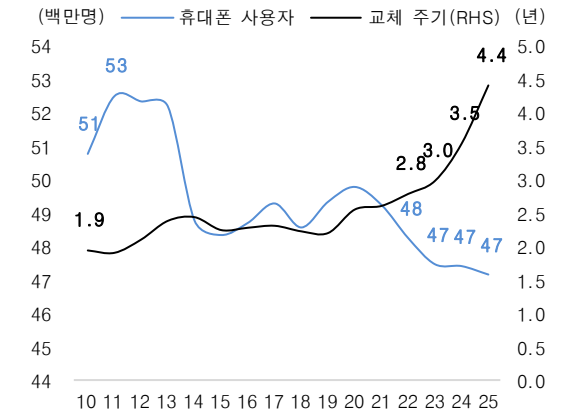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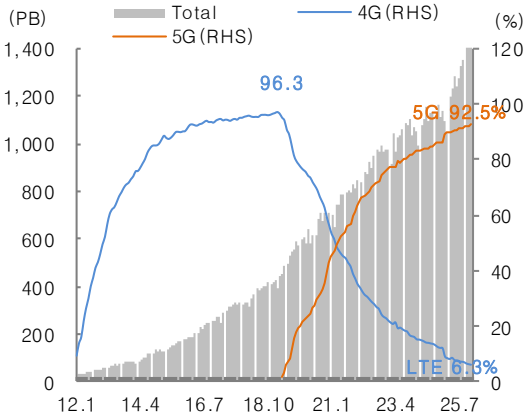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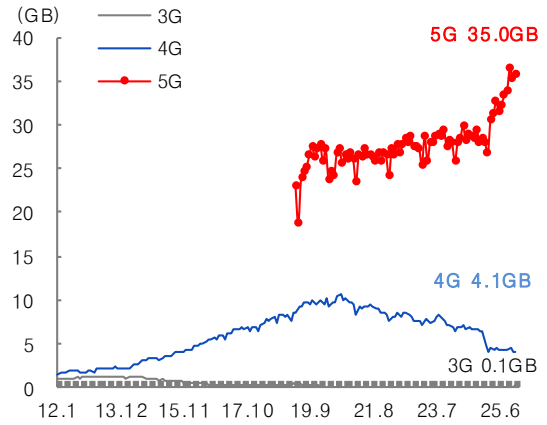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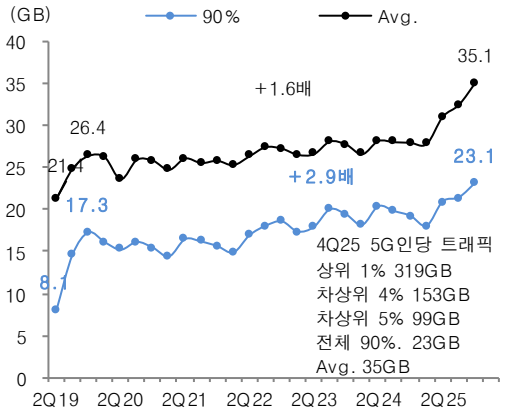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5.0GB(25.12월), +511M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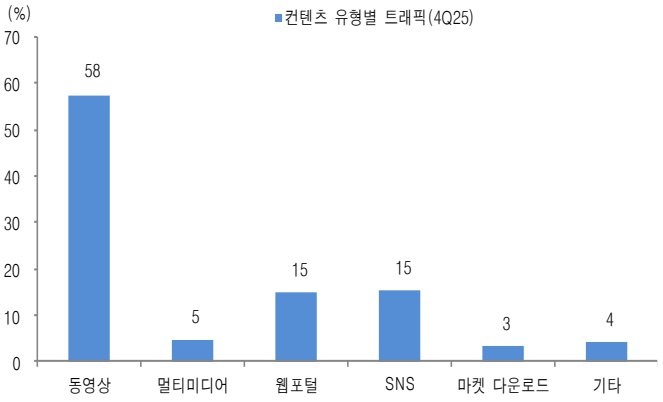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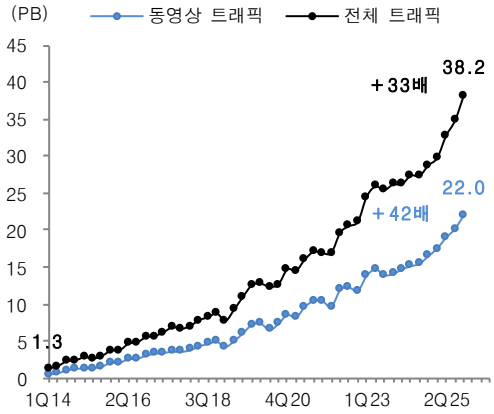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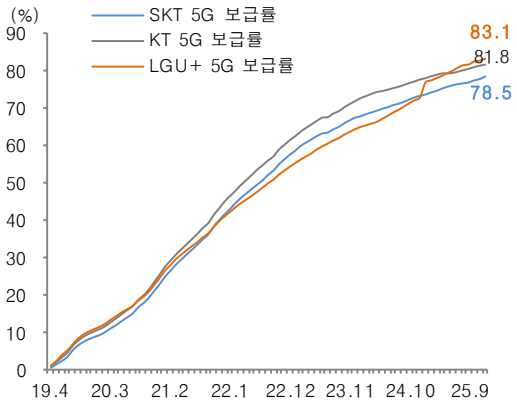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4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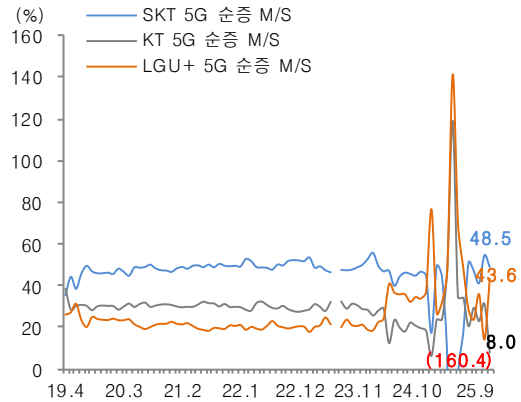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0.5%(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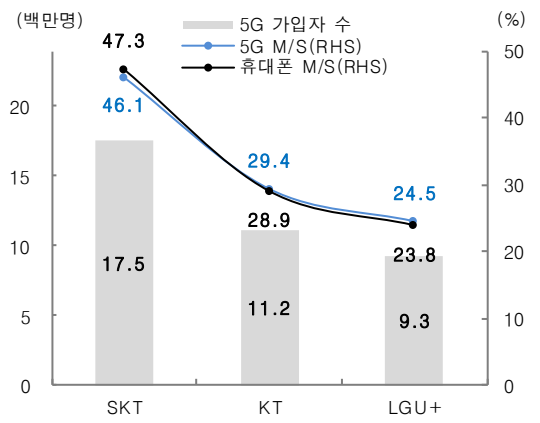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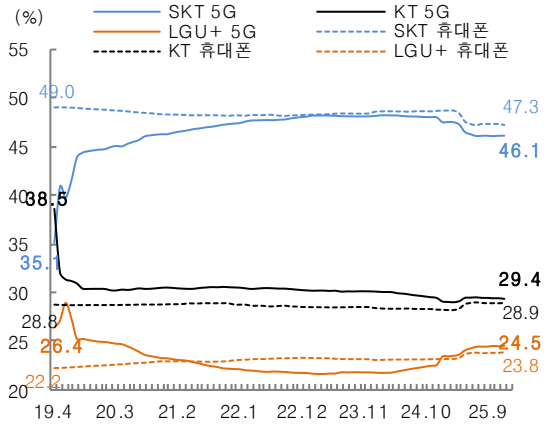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5.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